

# 현대건축의 표피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생성체적 특성 연구

## A Study of Characteristics of the Imagine Creator on the Architectural Skin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Author** 김도운 Kim, Do-Woon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석사과정  
김동진 Kim, Dong-Jin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부교수

**Abstract** Because the 'image' is the 'reality' in this era, there are the characteristics dematerialized between reality and non-reality i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These are promoting individualization, differentiation and multi-layered time with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technology. This tre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magines that are not only homogenized, simultaneous but also overlapped, multi-layered, discriminatory. Perspectives and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architectural skin are changing in terms of the technical and social awareness and that means the skin has features as a complex body. Recently as an imagine creator, the architectural skin make form of media boundaries reflecting the various relationships between the observer and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also, the interior space become another sensory skin by removing the boundarie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It is important that making an identity of the architecture defined by the media or the imagine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space in architecture. These changes of skin make the third space based on the viewer's imagination and show the potential of new architectural skin with the expansion space by blurring the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illusion. It occurs to the diversity of the architectural skin with the identity. It will more diversified and be recognized immediately and sensibly through the interface attributes in contact with the city directly. In addition, it is more important that the skin become a unified body related with urban, social and cultural context.

**Keywords** 표피, 상호작용, 복합체, 이미지 생성체, 감각  
Skin, Interface, Complexity, Imagine Creator, Sense

### 1. 서론

이미지가 곧 실재인 현대건축은 전자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현실과 비현실의 모호한 '비물질'적 개별화와 차별화 뿐 아니라 시간의 다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지가 동시에 상영되어 중첩과 다층화 등의 비균질적 이미지로 발전하고 있어 현대건축에서 이미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현대건축의 표피는 관찰자가 감각적인 경험에서 시작하여 생리적, 심리적, 미학적 해석으로 인식되고, 시각적 첫 번째 접촉이 이루어지는 특성들이 드러난다. 특히 현대건축의 공간과 외피개념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건축표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건축가의 과업은 불륨을 감싸고 있는 표면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다.”<sup>1)</sup> 라는 르 코르뷔제의 말처럼 현대건

축의 표피는 물질 표면에 대한 지각 방식 자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건축표피가 내부의 공간성에 부수적인 문제로서가 아닌 그 자체로 정체성을 가진 독자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기술적인 발전, 이미지 과잉, 탈 경계화, 탈 중심성, 복잡성 등 다양한 개념에 따른 새로운 건축적 성향이 생성되고 있으며, 표피와 이미지와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건축의 표피는 건축이 주로 다루던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비록 물질적으로 구축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 정보, 물질 등의 흐름이 형성하는 영역으로 함께 구성된다. 바트 루스마는 현대 도시를 바다에 비유하며 때로는 보이지 않는 흐름과 다수의 장이 형성하는 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화하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말하

1) Le Corbusier, 이관석 역, 건축을 향하여, 동녘, 2007

2) 손화정, 공간 이미지 표현으로서 표층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2, pp.31-35

고 있다.<sup>3)</sup> 이런 특성으로 인해 건축표피는 더 이상 건축의 부차적 산물이 아닌 유동적이며 선택적, 다층화 되는 경계 형성의 새로운 의미발생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불확정적이고, 비표준화된 모습은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의 모호성, 중첩, 다층화라는 차별적인 모습을 통해 이미지로서의 특성을 드러내며 건축뿐만 아니라 전 방위적인 디자인분야의 구조를 변화 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사람들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생성체적 특성의 연구는 건축표피가 내부와 외부의 관습적인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정보와 요소간의 관계를 새로이 재배치하고 인간의 시지각을 통한 감각적 인식, 표피의 의미 확장 및 이미지생성관계를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건축표피가 더 이상 지엽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 건축물의 표면과 주변 환경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며,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건축적 표피 중에서 관찰자의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발생시키는 사례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관찰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건축물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구현 특성, 적용되는 방법 및 시각적인 효과를 분석기준의 틀로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의미 생성 도구으로써 표피의 복합체적 역할과 함께 도시와의 상호작용의 특성, 나아가 시각과 감각의 구성 요소로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축표피의 현대적 의미와 발전 가능성을 밝히고자 한다.

## 2. 건축적 표피의 의미와 변화

### 2.1. 표피의 시대적 변화

#### (1) 19세기 이전의 건축 외피

‘구조와 장식 개념’의 변화를 통해 구조와 외피 관계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19세기 이전 서양 건축의 구축법과 관련이 있다. 즉, 철과 유리,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건축에 본격적으로 응용하기 전까지 서양건축의 구축법은 크게 가구식 구조와 아치식 구조로 나눌 수 있다.

가구식 구조는 힘의 역학적 전달관계가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드러나며 재료의 물리적 속성에 의해 구조, 형태, 공간의 관계가 좌우된다. 반면, 조적조로 구축되는 아치식 구조는 보를 아치형태의 조적조로 대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방식에 의해 그 관계가 주로 좌우된다. 이는 구조적 측면을 제외하면, 개구부로 인해 생김 리듬과 ‘장식’ 두 가지 요소가 주로 입면의 표현적 속성을 좌

우하게 된다. 그러므로 19세기 이전 구조와 외피 관계는 입면이 구축된 방식보다는 구조와 장식이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 크게 변하게 되었다.<sup>4)</sup> 1753년 건축론을 통하여 로지에는 원시 원두막이론을 제시하였다.<sup>5)</sup> <그림 1> 로지에는 구축에 필요한 요소를 제외한 장식적, 상징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건축의 본질적 접근이라 하고 있다. 이처럼 외피는 장식의 개념으로 구조의 구축성으로 표현되거나 강조하기 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외피는 구조와 결합된 파사드의 개념으로 이해되었고, 외피는 독립된 존재가 아닌 구축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구축이 외피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합리주의 건축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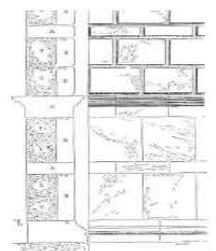
19세기 초 산업의 발달로 콘크리트, 철과 유리 등과 같은 다양하고 새로운 건축 재료들의 개발, 공법의 발달과 건축기술의 발달은 건축 외피를 구조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외피에 표현의 가능성을 부여했으며, 구조체와 외피는 분리되어, 외부와 내부의 시각적, 촉각적인 피부를 형성하는 독자적 특성과 영역들이 생겨났다.

독일의 칼 뢰티허는 표피를 예술형태(artform)의 제일 요소로서 건축생성을 위한 존재론적 수단인 핵심형태(coreform)와 대비시키는 가운데 구축의 전통과 사회문화적 표상인 의미작용(signification)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복하는 것이 장소와 구조적 지지의 모습을 만드는 요인이 된다.

공간을 에워싸는 벽의 분절만큼이나 최종적으로 모든 부분의 예술형태가 피복과 관련되어 있으며, 건축표피는 기술과 상징의 2중 체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프랑크 건축가 비올레 르 둑(Viollet-le-Duc)은 장식의 역할이 구조체의 질서를 강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였다. 비올레 르 둑은 “하나의 구조에서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연유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형태가 있다. 만일 구조가 바뀌면 형태도 바뀔 것이다.”라며 재료의 적절한 사용과 구조미의 진실한 표현을 주장하고 있다.<그림 2> 이에



<그림 1> 원시  
오두막,  
Marc Antoine  
Laugier(1753)  
기둥과 보의 구성을  
보여주는 원시  
오두막



<그림 2> Lectures on  
Architecture.  
Vol.1, Viollet le  
Duc(1872)  
피복의 추상화와  
구조체의 질서가  
반영된 외피

4) 유진상, 근대 이후 건축외피 표현방식 재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9권 제11호(통권181호), 2003.11, pp.220-222

5) 최기혁,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복합적 외피의 표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2, pp.6-17

목적성, 필요성, 명료성, 생산성에 의의를 둔 초기 합리주의는 양식과 형태의 간소화를 주장하는 건축적 담론이 형성 되었다<sup>6)</sup>. 산업화로 인해 새로운 구축방식과 규격은 규격화된 건축물 구성요소에 대한 대응으로서, 건축 부재의 대량생산과 표준화에 연결되었다. 공업생산 재료와 구조법의 도입은 '기계적인 형태'의 합리적이고 경계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기하학적 건물을 생성하며, 근대 이후의 건축을 대표하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 (3) 피복론을 통한 상징적 표현

칼 비티허와 고트프리트젠퍼의 등장 이전에 표피에 관한 논의는 주로 표면의 색채나 재료 등에 관한 것들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들로 인해 표피에 대한 논쟁은 표면치장의 범위를 넘어 공간으로서의 표피로 확장되었다.

고트프리트 젠퍼는 “고대는 근대든, 건축 형태는 물질에서부터 나왔고, 그것에 의해 조건 지워졌다. 그리고 그 형태는 건설을 건축의 본질로 간주하면서 태어났다. 만일 가장 적합한 재료가 어떤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택되었다면, 건물의 이상적 표현은 재료의 외관을 통해 미와 의미를 획득한다.”<sup>7)</sup> 라고 말하며 건축에서 재료는 건축의 본질적 의미와 형태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건물의 외피는 기능적 또는 구조적 표현을 넘어 건축의 물성을 통해 드러나는 표면에 대한 감각적 인식이라고 건물 외피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형태가 물질적인 특성을 초월하여 상징적인 표현이 될 때만이 건축이 물질적인 측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젠퍼의 지적은 구축의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조적-기술적 가치보다는 구조적-상징적 가치가 우위를 점한다고 젠퍼는 강조했다. 즉, 구조나 재료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보다는 상징적 표현이 더 중시되는 것이다.

### (4) 추상적 피복론을 통한 표피

근대 건축에 등장한 백색 페인트의 피복은 아돌프 로스의 '장식은 죄악'으로부터 연유된 정방형의 추상적 조형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다.<sup>9)</sup> 백색의 추상적 피복은 근대의 시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해석 될 수 있고, 이것은 이후 국제양식의 원리인 볼륨과 장식이 없는 피막의 미학으로 귀결된다.

로스가 주장하는 피복은 젠퍼의 역사적, 상징적 장식에 내포된 의미와 감각적 특성을 배제한 것이다. 그는 '건축(Architecture)'에서 문화의 발달을 장식으로부터 장



<그림 3> Moller House, Adolf Loos(1927)

감각의 특성을 배제한 간결한 형태와 색상의 절제를 통한 표면의 표현성

식 제거로 가는 진화적 발달로 기술하며, 이러한 로스의 장식 제거는 르-코르뷔제의 '리폴린(에나멜도료)의 법칙'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면의 표현은 내부의 '청결함'으로 도덕성을 함축하면서 하얀 페인트의 단순한 색상으로 장식을 근절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 또한 건축의 표면을 통해 단순성과 건축의 목적성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말하고자 하며, 관찰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위한 인식의 장치로써의 표피로 작용하게 된다.

## 2.2. 건축적 표피

케네스 프렘턴은 건축적 표피를 경계로서의 의미만이 아닌 재료의 본질과 구축의 논리를 통해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담는 장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는 사회·문화적인 의미가 생성되는 예술적인 형식, 즉 상징구조와 표상적 텍토닉 영역의 제일요소로서 '에워싸는 막'이라는 관점에서 건축적 표피의 가치를 재해석하였다.<sup>10)</sup> 앞서 밝힌 시대에 따른 표피의 변화는 기계적인 형태에서 감각으로 확장된 상징적 역할과 점차 추상적인 개념이 첨가되면서 관찰자의 주관에 의한 인식의 장치로 의미가 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건축적 표피가 기술적·사회적인 이유로 의미가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본질적인 성격마저 변화하고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표피자체가 시대에 따라 건축에서의 위상과 기능이 달라짐을 뜻하며, 그 의미와 성격이 고정되지 않고, 사회적인 변화와 기술적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스케일의 변화와 함께 관찰자의 시점은 기존의 건축물을 구성하는 4방위의 표면의 측면을 벗어나 5번째 입면으로서의 표피에 해당되는 옥상부로 시선을 옮기게 된다. 르 코르뷔제의 빌라사보아는 관찰자의 시선을 옥상부로 끌어들이면서도 지상부에만 존재하던 자연적인 요소를 끌어들이고, 상징적인 조형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요소들이 첨가될 표현 가능성을 주었다.<그림 4> 이 같은 건축적 표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은 삼차원적인 걸 표면 뿐만 아니라 다른차원으로의 시각과 표현 가능성의 세계를 바꾸게 된 계기가 되었다. 태로부터의 표면으로, 구조체로부터 표피의 분화는 현대의 공간설계가 구조보다는 공간을 덮는 피막의



<그림 4> Villa Savoye, Le corbusier(1931)

옥상부에 다른요소들을 첨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적 표피를 형성

10) 김정순, 건축에서 '표피의 구축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1권 2001.10, p.610

6) 이영미 외 2명, 비올레 르 둑 건축이론에 나타난 합리주의적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9권 제11호(통권181호), 2003.11, pp.84-85  
 7) 정인하, 고트프리트 젠퍼와 칼 비티허의 텍토닉 개념 비교, 건축역사연구, 제7권 제4호(통권17호), 1998.12, p.82  
 8) 추상적 피복론 : 고트프리트젠퍼의 피복에 역사적, 상징적 장식에 내포된 의미와 감각적 특성을 배제한 것이다. 이는 건축의 표면을 통해 단순성과 목적성을 대표한다.  
 9) 유연숙, 아돌프 로스의 장식배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3권 3호(통권제44호), 2004.6, pp.12-14

개념, 즉 클래딩<sup>11)</sup>으로 그 관심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변화는 구축공간을 의미전달의 수단으로 보면, 공간이 형성하는 경계면으로서의 표면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근대건축의 연속 선상에서 표면이 갖고 있는 파사드의 의미보다는 공간의 존재론적 상징성을 부가하고 그 동안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오던 클래딩을 전체공간과 구조에 맞추어 양자간에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포스트모던 이후 해체주의의 피막, 미디어 건축의 표면에 이르기까지 공간의 경계 영역으로서 의미를 전달하는 인터페이스로서의 표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2.3. 이미지로서의 건축적 표피

예술의 생산방식을 다루는 데 있어 90년대는 ‘네트워크’방식과 집단 지성이 출현하였고, 이미지는 관찰자의 지각에 의해서 의미가 재해석 또는 편집, 변형되었으며, 건축적 표피에서 이미지로부터의 관계적 접근을 만들어 냈다. 이는 건축적 표피 자체의 물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의 관찰자가 바라보는 표피의 내·외부의 관계성이 중요해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에 따라 나타난 현대사회의 비표준화 경향은 인간과 공간 사이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형성시키고 있다.<sup>12)</sup> 이러한 건축적 표피의 불확정적이고, 비표준화의 모습은 실제와 가상현실사이의 모호성, 중첩, 다중화라는 차별적인 방식과 표현효과를 만들고 있다.

인간은 기계와 달리 균질적이지도 반복적이지도 않으며 그의 감성과 행동양식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감성은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대하여 반사적이고 직관적으로 발생되며, 개인과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다원주의<sup>13)</sup>에 기초한 감성의 부분을 디자인으로 끌어들이는 현상은 건축에서 표피의 이미지 중심적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건축의 표피가 생성하는 이미지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관찰자들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이중구조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토요 이토는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상적인 신체와 현실적인 신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가상적인 신체는 현실 이면의 보이지 않는 것과 교감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체와 감각의 경험이 현실적인 신체와 결합

하게 만드는 건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가상현실과 실제에서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토요 이토가 카즈요 세지마의 건축에서의 경험을 두고 ‘질감이 없는 것이 컴퓨터 게임과도 같다’고 표현한 것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현대건축의 표피가 실제적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처럼 비물질적이고, 관찰자의 재해석을 통해 이미지화 된 성격을 지니게 되어 이미지로서의 건축적 표피로 지각되어 진다는 것이다. 이때 건축적 표피는 사회적 관계들을 투사하며 관찰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게 되고, 집단행동으로부터 나오는 일시적인 이미지들을 결합하는 하나의 복합체로써 작용하게 된다. 단순히 현상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질세계를 구성하는 조건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5>  
vieux-port-pavilion,  
Foster+partners(2013)  
실내공간을 강조하여  
새로운 시각적 표피를  
형성

현대사회는 물리적인 공간과 사이버 공간과의 관계가 점점 혼동되어 가고 있다. 특정한 장소에 위치한 육체는 유동하고 확장되는 공간 속에서 더 이상 기존의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정신적인 차원으로 포용되는 새로운 공간을 맞닥뜨리게 된다. 건축적 표피는 점점 더 다중화되고, 혼합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이미지를 반사하는 재료의 물성이 침식하는 물성을 가지는 재료의 비물질화로 나타나며,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전달하게 된다. 관찰자는 신체의 지각, 경험, 기억의 정도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는 인터페이스적 표피를 형성하게 된다. 건축의 한정된 공간과 역할의 Foster partners의 ‘vieux-port-pavilion’에서 보여지듯이 영역확장을 위한 새로운 의미구조를 가진 주체로서 작용하게 됨을 나타낸다.<그림 5> 이 같은 이미지로서의 건축적 표피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관계적 표피의 매체성

현대의 뉴미디어 기술은 디지털 사회로의 변혁을 가져왔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아날로그 방식들은 전자화 된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서 새로운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는 뉴미디어 기술의 매체성으로 나타나며, 예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작용하는 관계적 표피로 나타나고 있다.

니콜라부리오의 ‘관계의 미학’에서는 ‘이미지에 의해 미디어화 된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형성<sup>14)</sup>’이란 말을 통해 도시와 건축 관찰자들 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방식을 통해 생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물질로서 이미지의 생산은 빛과 이미지, 가상과 현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투명성과 개념적인 이미지 사이

11) 클래딩(Cladding) : 보호용 피막으로 금속위에 다른 금속을 덧씌우는 것을 뜻한다. 이는 감싸는 물질의 의미가 더 강조된 피복을 지칭한다.  
12) 남영호 외 2, 현대건축의 활성표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4권, 제11호(통권 241호), 2008.11, p.126  
13) 다원주의(pluralism) : 사회는 여러 독립적인 이익집단이나 결사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권력 엘리트에 의하여 지배되기보다는 그 집단의 경쟁·갈등·협력 등에 의해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된다 보는 사상

14) 니콜라부리오, 현지연 역, 관계의 미학, 미진사, 2011, pp.149-150

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물질의 이미지는 건축적 표피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이미지로 관찰자가 인식하게 된다. 즉, 건축 형태 자체가 의미의 생성체라면, 건축적 표피는 다양한 맥락을 만들 수 있는 요소의 매개체로서 작용함을 뜻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건축가들은 산업주의가 집착하던 실용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과 재해석에 의해 디자인에 '이미지'의 요소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것은 이용자의 감성에 부합하여 새로운 미학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것은 현대 건축공간의 탈물질화 경향과 함께 물질소비를 뛰어넘는 '이미지의 소비'라는 현상이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관찰자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공간의 이미지체계 내에서 이미지를 소비함을 뜻하며, 그 이미지가 재해석 되는 회화적인 표현성과 그 의미를 함께 하고 있다. 또한, 뉴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상호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로 건축적 표피의 물질세계의 다양성을 확장 하고 있다.

## (2) 혼성적인 감각의 경계면

현대건축에서 표피는 재료의 재인식을 통해 감각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사건의 접점으로 감각의 요소들이 충돌하는 경계면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표피의 투명성과 함께 내·외부의 관계가 재설정되고, 잠재된 물질들이 관찰자의 다양한 감각적 체험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때 건축적 표피는 촉각적 감각으로도 확산되는 장소성의 특성을 시각을 통해서 감지하게 된다. 실상과 허상의 혼합 같은 이미지들이 혼성적인 감각의 경계면을 만든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재료의 물성을 교란시키는 건축표피의 가촉성<sup>15)</sup>과 같은 시각적인 환상을 통해 공감각적 지각 요소를 가지는 경계면으로 장소의 특질을 만들게 된다. 감각을 통하여 이미지를 파악한다고 할 때 이미 관찰자의 감각 자체가 구체적인 이미지의 생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감각적 이미지들은 우리 몸의 경험이 바탕이 되는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sup>16)</sup>

현대사회에서 드러나는 건축표피의 경계는 근대 이전의 불투명성과 근대의 투명성 사이에서 모호한 경계를 형성하는 반투명적인 경계로 나타난다. 기존의 경계형성의 지표로서 인식되었던 것이 공간과 공간사이의 관계가 하나의 주체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다층의 주관이 상호작용하는 반투명적 경계로 전이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투명적 경계로 이미지 생성체로서의 표피는 현대사회가 개인의 가치 중심의 경향을 대변하게 됨을 뜻한다. 나아가 비표준화의 경향으로 중첩되고, 다층화 되어 차별적인 모습으로 이미지를 생성하여 관찰자로부터 시·지각적

인 표면의 경계면에 대한 인식과 의미 발생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 이미지의 생성이 이루어 질 때 관찰자의 감각은 자극에 대한 생물학적인 반응만이 아니라 주체의 경험과 더불어 새로운 의미를 환기 시키게 된다.

## (3) 복합체로서의 의미 확장

현대건축의 표피는 기술적이고, 상호 교환적이며, 시설들과 서비스 장치를 내포하는 복합체로서 그 의미와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Jean Nouvel의 'Copenhagen concert hall'에서 보여지 듯 표피 자체가 다른 통합된 여러 표면들이 보조할 수 있는 기능적인 요소들을 가지게 되며, 통합적인 장치로 작용하게 된다.<그림 6>



<그림 6> Copenhagen concert Hall, Jean Nouvel(2010) 주변환경의 변화에 상호작용하며,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 건축의 통합된 시스템을 내재하고 있는 표피

그림 6> 건축적 표피는 단순히 물질적 차원을 넘어 건물의 내·외부 공간과 나아가 도시 공간 속에서 의미를 생산하는 이미지 표현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영적 영상을 만들어내는 특성을 보이며, 이러한 환영적 표피<sup>17)</sup>로서의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즉각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 이미지로서의 건축표피를 이루는 요소간

의 관계에 따라 지속적인 의미 생산과 중재가 가능하며, 단순히 기능을 반영하는 외피가 아닌 인간과 환경과의 다양한 관계형성의 장으로서의 건축적 표피로 작용하게 됨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이미지로서의 건축적 표피는 이와 같은 인간과 환경사이의 이미지에 의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미적 정보의 장으로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인간이 환경을 인식할 때 이미 인간과 환경사이에는 하나의 정보공간이 성립되며, 건축적 표피는 정보들이 자유롭게 유평하는 인터페이스적 성격과 실체적이고, 유기체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건축의 공간성에 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건축적 표피의 이미지에 의해 건축자체의 이미지를 관찰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 3.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표피의 사례분석

3장에서 나타나는 현대건축의 표피들은 현대사회를 대변하는 요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복합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의미와 역할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으며,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두드러지는 현대건축 표피의 특징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표피들이 생

15) 이병욱, 미스 반 데어 로에 건축의 외면에서 나타난 몸체와 정신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07, pp.35-41

16) 홍명희, 상상력과 가스통 바솔라르, 살림지식총서, 2005, pp.71-79

17) 손화정, 공간 이미지 표현으로서 표층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2, pp.77-79

성하는 이미지 표현을 분석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이는 현대건축의 표피가 표현되는 요소들과 기법, 효과까지 포함하였다.

### 3.1. 전달 매체로서의 회화적 표현

현대사회에서 건축표피는 기존의 장식적 외피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상호작용의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건축표피가 단순히 양식에 따른 조형적 가치로서의 표현이 아닌 기하학적인 모듈들의 반복과 팝아트적인 이미지의 표현, 입자화된 표면의 패턴들이 새로운 회화적 이미지 표현방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표현방식들은 외부 환경이 투시도적 깊이감을 갖는 대신 회화처럼 외피에 평면적으로 합성된다. 이러한 감각과 지각을 이용한 표현방식을 통해 도시 안에서 복합적 정보를 이미지와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작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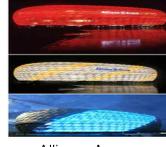
현대건축의 표피는 관찰자들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집단행동으로부터 나오는 일시적인 이미지들이 결합하는 하나의 복합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현상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와 건축, 도시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특성을 보이며, 개별적으로 건축표피들이 입자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건축표피는 다공적인 표현을 통해 관찰자로 하여금 이미지가 재해석 되는 감각적인 표피로 지각되어 진다. 다양한 패턴으로 구성된 표피는 패턴들이 엮이며 생기는 틈새를 통해 외부의 다양한 이미지를 실내공간으로 유입하며, 경계 및 표피 공간의 불확정성, 몽타주적 이미지 표현, 현상적 투명성이 담긴 회화적 표현의 표피를 형성하게 된다. 건축표피의 회화적 표현은 전달매체로서 콜린 로우<sup>18)</sup>의 ‘투명성은 서로 다른 공간적 위치의 동시적 지각을 의미 한다.’는 말처럼 다공적 형질의 표면들이 겹침효과를 통하여 공간의 깊이감을 표현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물성과 서로 다른 물성의 효과를 이용해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입자화된 건축표피는 다공성<sup>19)</sup>적 특질과 디지털화 된 표면으로 인해 기존과 다른 물질성을 부각하고, 다양한 구축방식을 통해 새로운 입체화 된 몽타주적 이미지와 정보를 전달하여 관찰자와의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표 1> 전달매체로서의 회화적 표현

| 표현 요소   | 표현 기법   | 표현 효과   |
|---|---|---|
| -내·외부의 이미지 합성<br>-다매체 사용<br>-상호작용<br>-접촉성<br>-일시성 | -재료적 상호작용<br>-선택적 반투명 경계<br>-표면의 병렬적 반복<br>-표면의 입자화 | -패턴들이 엮이며 생기는 틈새로 인한 몽타주적 이미지 형성<br>-표피의 불확정성<br>-픽셀화된 표면의 추상적 표현 |

18) 김홍일, 콜린 로우 “투명성 이론”의 건축 공간분석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8권 제9호(통권 167호), 2002.9, p.34

19) 다공성 : 공극에 의한 투명성으로 재료의 비물질화를 위한 인위적인 공극으로 투명성을 부여한다.

| 사 례  | 특 징   | 이미지 표현 방식                           |
|--|---|-------------------------------------|
| <br>elbphilharmonie hamburg<br>nearing completion,<br>herzog & de meur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면의 다공성을 통해 경계 및 외피 공간의 불확정성, 몽타주적 이미지를 형성</li> <li>현상적 투명성이 담긴 표면을 형성</li> <li>다공적 형태의 표피는 외부의 무한히 반복되는 움직임을 내부 공간으로 끌어들이</li> </ul>  | 불확정성 / 몽타주적 이미지 형성                  |
| <br>White Block Gallery, Ss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의 표면의 몽타주적 이미지 형성</li> <li>픽셀화된 표면들이 회화적 이미지를 구성</li> <li>투명성과 다공성을 통하여 표면과 외부와의 경계를 흐림</li> </ul>   | 공간내부 표면의 몽타주적 이미지를 형성               |
| <br>Museum der Kulturen,<br>Herzog & de Meur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자화된 육각형의 표피들이 서로 다른 각으로 조합되어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li> <li>외피 유리패널이 각각의 다른 기술기를 기점으로 내부의 다양한 공간을 연출</li> <li>외부에서는 표피의 반사성을 통해 시간(빛)의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li> </ul>                        | 즉각적인 시각적 경계면 형성 /외부 환경에 따른 변화하는 이미지 |
| <br>Allianz Arena,<br>Herzog&deMeur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듈화된 반투명 재질표피</li> <li>소속팀의 정보를 여러 가지 색의 빛으로 표피를 통해 재현-&gt;도시의 환경과 소통하는 미디어의 상징적 표현</li> <li>광투과성 재료인 ETFE 쿠션으로 이루어진 표피</li> <li>전달의 매개적 역할 및 이미지 생성체로서의 복합적인 의미 수용</li> </ul> | 유기체적 이미지 /다층의 이미지 형성                |
| <br>FIH domicile, 3X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 블라인드, 알루미늄 셔터로 표피를 구성</li> <li>레이어의 개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형성</li> <li>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다층적인 경계공간의 형성</li> </ul>   | 유기체적 이미지 /다층의 이미지 형성                |

### 3.2. 표피의 깊이감을 통한 감각경험

현대건축에서 표피는 깊이감의 확대를 통해 표면에 가공되어진 이미지나 구축의 변형과 원경에서 건물을 비물질적인 시각적 표면으로 해체시키고 있다. 이 같은 특성은 다양한 특질을 내포하는 혼성화된 성격을 띄게 되며, 현대사회에서 시선이 머무르게 되는 건축 표면, 즉 장소를 만드는 경계면에서 다양한 이미지 표현 효과를 통해 감각적인 경험을 만들어 내고 있다.

건축표피는 반사되는 이미지와 물성의 조작을 통해 즉각적 환상을 만들어내며, 비물질화로 나타난다. 이때 표피의 깊이감을 통한 감각경험은 실체와 허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관찰자의 상상력에 기반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착시를 이용한 표현성의 특징을 가지며, 평면적 경관 합성, 커를 분간할 수 없도록 하는 표면 조작, 멀리온과 모서리부 숨기는 디테일, 표면을 평활하게 하거나 투명한 중첩을 반복시키는 등, 표현성의 강화를 통해 혼성적인 감각과 환상적인 공간감적 지각 특성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시각적인 혼성적 감각은 외부에서의 건물의 외곽선의 소멸과 내·외부의 경계선의 소거를 통해 장소성을 형성하고, 인식적 경계를 강화한다.

표피의 깊이감을 통한 감각경험의 특성은 ‘깊이를 지닌 새로운 커’로서 다양한 의미와 사건들을 발생시키고, 영역간의 새로운 경계와 의미를 형성한다. 이는 주로 요

철성을 가지게 되는 볼륨과 표피로 인해 공간을 사유함으로써 다양한 이미지를 표출하는데 의의를 가지며, 지각적이고 인터페이스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건축표피는 감각적 표현의 대상으로 그 중요성을 가지고, 강조되는 물질적 실재감은 물성을 통해 드러나는 시각적 경계면에 대한 감각적 인식과 경험을 하게 된다.

<표 2> 표피의 깊이감을 통한 감각경험

| 표현 요소  | 표현 기법  | 표현 효과   |
|--|--|---|
| -다양한 층위의 이미지<br>-표피의 가축성<br>-내·외부의 상호작용  | -이중적 경계<br>-다층적 경계<br>-평면적 공간과 모서리부의 조합<br>-표면의 투명한 중첩   | -내부공간의 물성 강조<br>-모호한 깊이감 형성<br>-평면적 경관을 통한 경계면<br>-비물질화를 통한 경계면<br>-혼합체적 이미지 형성 |
| 사 례  | 특 징  | 이미지 표현 방식   |
| <br>Glass Pavilion Toledo Museum of Art, SANN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호한 깊이감을 형성</li> <li>• 내부공간이 외부로 확장</li> <li>• 외부 풍경의 파편화</li> </ul>  | 내·외부의 상호작용을 통한 혼합체적 이미지 / 표면의 몰타주적 이미지를 형성                                      |
| <br>Kitagata Apartment, SANN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질적인 재료의 기하 볼륨을 장식적 형태 요소로 사용</li> <li>• 직각의 두터운 주거 볼륨에 표피의 투명성(깊이감)을 부여</li> <li>• 규칙적인 내부가로의 노출은 강력한 이미지를 위한 의도적 장치로 전환</li> </ul>  | 착시를 통한 이미지 합성   |
| <br>Offices in Zamor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다른 재료의 표피가 연속적으로 결합된 형태</li> <li>• 시간, 빛의 변화에 따른 내부공간감의 변화</li> <li>• 이중적 레이어의 투명성을 통한 인식적 경계의 연장</li> </ul>                       | 상호 투영하는 표피  |
| <br>John E. Jaqua Academic Center, ZGF Architec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면 내부의 몰타주적 이미지 형성</li> <li>• 이중적 레이어의 투명성을 통한 인식적 경계의 연장</li> <li>• 투명성과 함께 표면과 외부 환경과의 경계를 흐림</li> </ul>                            | 부분적 상호 투영하는 표피  |
| <br>Karmeliterhof, LOVE architecture and urbanis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철성을 가진 표피의 볼륨으로 공간의 깊이감 부여</li> <li>• 내부의 프로그램과 관찰자와의 상호작용</li> <li>• 다각도 프레임+반사유리를 사용</li> <li>• 시간, 빛의 변화에 따른 내부공간감의 변화</li> </ul> | 깊이감을 통한 내·외부의 이미지 합성  |

### 3.3. 새로운 경계로서의 건축표피

새로운 경계로서의 건축표피는 내·외부의 관찰자로 하여금 공간의 깊이감과 실체감을 파악하기 힘들게 만들고, 경계의 소거와 외부 환경의 파편화를 통해 시간과 빛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공간감을 느끼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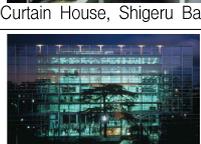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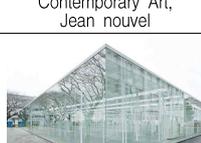
현대건축에서 표피가 만들어 내는 건축적 이미지는 다층적 의미를 가지는 장누벨의 ‘비물질성’과 함께 가벼운 건축을 추구하는 건축의 특질을 반영하며, 세지마의 모아레 현상을 이용한 반투명성과 함께 건축표피의 경계면으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시 하게 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sup>20)</sup> 이러한 경향은 평활한 투명외피로 구축되어 크게

20) 유진상, 가즈요 세지마의 착시효과를 이용한 표현적 외피 구축방법

내·외부 경계면의 모호성과 내부공간으로의 관계성을 통해 심층적 깊이감을 좀 더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보여주며, 새로운 건축적 경계를 형성한다.

건축표피가 새로운 경계면을 형성한다는 것은 물질의 투과 관문으로서 능동적인 기능과 함께 내·외부의 경계면을 모호하게 만들고, 모아레 현상<sup>21)</sup>을 이용해 비선형의 패턴이 유리 표면을 불투명 또는 반투명한 상태로 구축된다. 이러한 두 패턴이 관찰자에게 어떤 곳은 강조되고, 다른 곳은 약해지면서 만들어지는 ‘간섭’을 통해 세 번째 패턴으로 지각 되어 진다. 이 같은 특성들은 건축표피가 불규칙한 농담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며, 표피의 경계면을 해체시키고, 평면적 합성을 통해 무게감이 사라진 하나의 혼합체적 이미지로 보여주게 된다.

<표 3> 새로운 경계로서의 건축표피

| 표현 요소   | 표현 기법   | 표현 효과  |
|---|---|--|
| -확장성<br>-인식적 경계의 모호성<br>-내·외부의 상호작용<br>-가변성   | -재료적 상호작용을 통한<br>-표면 이미지를 생성<br>-새로운 패턴 형성<br>-몰타주적 경계를 소거<br>-표면의 투명성과 접합을<br>-구조적 요소와의 일체화  | -무의식적인 내부공간의 생성<br>-비물질화를 통한<br>-경계면의 소멸<br>-공간감의 침투 효과<br>-몰타주적 깊이감을<br>-알 수 없게 합 |
| 사 례   | 특 징   | 이미지 표현 방식  |
| <br>Louvre-Lens Museum, SANA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성과 반투명성의 이중성</li> <li>• 얇은 구조체들의 구성으로 비물질적 가벼움을 부각 시킴</li> <li>• 공간적 깊이감과 실체감의 모호성과 시각적 확장성</li> <li>• 외부 환경의 파편화를 통해 내부 공간이 끊임없이 변화함</li> </ul>                 | 상호 투영하는 표피 / 표면의 몰타주적 이미지를 형성  |
| <br>STAGE 2 BY ROOM, GAS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환경과 빛, 조명을 이용하여 내외부의 경계면의 확장을 통해 관계형성을 위한 소통의 매개체로서 작용</li> <li>• 반사의 효과로 다층적인 경계를 형성</li> <li>• 투명한 표피의 중첩으로 건축적 경계 소거</li> </ul>                               | 상호 투영하는 표피 / 내·외부의 상호작용을 통한 혼합체적 이미지   |
| <br>Curtain House, Shigeru Ba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변적인 요소로서 작용하는 커튼의 개폐에 따라 반투명적 표피</li> <li>• 이용자의 선택과 행위에 따른 내·외부의 인식적 경계를 형성</li> <li>• 바람에 의해 변화하는 표피의 가변성</li> <li>• 두 개층의 거주 공간이 개폐식 커튼을 통해 변화하는 표피</li> </ul> | 가변적 투명성을 통한 이미지의 변형 / 다층의 이미지 형성   |
| <br>Cartier Foundation for Contemporary Art, Jean nouve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한 외피의 중첩을 통한 인식적 경계의 소멸</li> <li>• 외부환경과 외피의 시각적 이미지 중첩</li> <li>• 주변환경을 내부로 동화</li> </ul>   | 상호 투영하는 표피 / 내·외부의 상호작용을 통한 혼합체적 이미지   |
| <br>Kanagawa Institute of Technology Workshop, Junya Ishigam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식적 경계의 모호성</li> <li>• 외부환경과 표피의 시각적 이미지 중첩</li> <li>• 평면적 합성을 통해 무게감이 사라지고 하나의 혼합체적 이미지를 보여준다.</li> <li>• 구조에 의해 형성된 무중 공간으로 구조체 자체가 건축표피의 주요 이미지로 작용</li> </ul>  | 간섭을 통한 상호 투영하는 표피 / 내·외부의 상호작용을 통한 혼합체적 이미지  |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1권 제8호(통권 202호), 2005.8, p.124

21) 모아레 현상 : 두 개의 요소가 서로 겹치면서 나타나는 왜곡 효과를 말한다. Cyril Barrett, 정미희 역, An introduction to Optical art, 1970, Studio Vista, 미진사, 1987, pp.74-75

### 3.4. 소결

사례 분석을 통해 현대건축의 표피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미지를 구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대 건축의 표피가 단순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단순한 외장적 역할이 아닌 그 자체에 기능과 감각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복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건축 공간 자체의 체험을 통해 사람들의 시각적 감각을 자극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감각의 모든 요소를 동반하는 경험을 표피를 통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찰자는 주관적인 재해석과 함께 물질적 차원을 넘어 건물의 내·외부 공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지 표현 방식과 효과를 통해서 이미지 생성체적 표피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아래의 표와 같이 건축표피를 바라보는 재료적이고 물리적인 요소들의 사고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는 새로운 건축을 위한 이미지생성체적 표피의 내재된 특성을 가지게 된다.

<표 4> 현대건축 표피 사례분석을 통한 이미지 생성의 특성

| 구분    | 전달 매체로서의 회화적 표현   | 표피의 깊이감을 통한 감각경험                        | 새로운 경계로서의 건축표피                          |
|-------|---|---|---|
| 특징    | 표면의 다공성을 통해 경계 및 외피 공간의 불확정성, 상호작용성, 현상적 투명성이 담긴 표면이 유기체적인 표피를 구성 | 내부공간의 물성강조 모호한 깊이감의 형성과 비물질화를 통한 경계면 소멸 | 무의식적인 내부공간의 표면 이미지 생성 / 비물질화를 통한 경계면 소멸 |
| 표현 방식 | 유기체적 이미지 / 다층의 이미지 형성   | 내·외부의 상호작용을 통한 혼합체적 이미지 형성              | 표면의 간섭을 통한 새로운 패턴을 시각 및 콜라주적 이미지 형성     |
| 표현 효과 | 표피의 불확정성을 통한 입자화된 표면의 상호작용성 / 추상적 표현을 통한 몰타주적 이미지 형성              | 표피의 가축성과 다양한 층위의 이미지 혼합을 통해 내·외부의 상호작용  | 공간적 깊이감과 실제감을 파악하기 힘들게 만듦               |
| 생성    | 자기반응체적 상호작용성 / 혼성적인 감각의 다층성                                       | 불확정적 경계면 / 확장적 경계 / 혼성적인 감각의 다층성        | 확장적 경계 / 불확정적 경계면                       |

## 4. 현대건축의 이미지 생성체적 표피의 특성

### 4.1. 자기반응체적 상호작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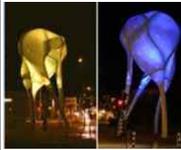
이미지 생성체로서의 건축표피 특성 중 자기반응체적 특성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미지가 투사되고, 중첩되는 스크린이자 동시에 주변 환경에 대한 감응체이다.<sup>22)</sup> 이를 통해 정보의 소통체계로서 관찰자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현대 미디어에 의한 영향이 건축표피를 실체적이고 생명력을 지닌 유기체로서 인식하게 만든다. 앞서 언급되었던 건축표피의 회화적 표현성의 특징에서 더 나아가 복합적 정보를 전달하는 투사체로서 이미지생성체적 표피의 특성을 띄며, 관찰자와 도시, 건축의 관계를 매개하면서 표피 스스로 변화에 반응하여 주변환경과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이러한 이미지 생성체적 표피의

22)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1, pp.60-81

특성은 디지털 기술에 의해 관찰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체험과 의미전달을 가능케 한다.

이미지 생성체적 표피에서 생성되는 이미지는 끊임없이 변화하여 건물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인식되어진다. 또한, 이미지 정보가 표출되는 스크린으로써 관찰자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따라 그 정신적·상징적 가치가 상승하게 한다. 이때 일관된 이미지 보다는 연속 이미지로서 관찰자에게 인식되어 다층의 이미지와 다른 물질성을 발생하고, 변화하는 시각적 경계면 형성한다. 마치 피부를 교체하듯이 변화하는 미디어적인 일시성을 보이며, 변화의 속도에 대응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이미지 생성체적 표피는 관찰자의 해석과 인식을 기반으로 디자인 하며, 환경을 이미지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시간성이 담긴 표피로 작용하게 된다.

<표 5> 자기반응체적 상호작용성을 통한 특성과 의미

| 대표 사례  |   |  |  |
|--------|---|---|---|
|        | Copenhagen Concert Hall, Jean Nouvel  | Aperture, Frederic Eyl & Gunar Green  | D-Tower, Lars Spuybroek   |
| 이미지 기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피의 필터적 기능</li> <li>• 빛의 조도, 낮과 밤의 변화</li> <li>• 관찰자의 지각적, 인식적 해석</li> </ul>   |   |   |
| 이미지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각적인 시각적 경계면 형성</li> <li>• 다층적 이미지 생성</li> <li>• 관찰자와 건축표피와의 의미적 관계 형성</li> <li>• 살아있는 유기체적 이미지 생성</li> </ul>                                      |   |   |
| 이미지 생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작용하는 관계적 표피</li> <li>•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미지 연출</li> <li>•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각적 경계면 형성</li> <li>• 외부환경에 반응하는 감응체</li> <li>• 행위 참여적 상호작용성</li> </ul> |   |   |

### 4.2. 혼성적인 감각의 다층적 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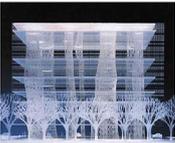
이미지 생성체적 표피는 혼성적인 감각이 담긴 다층적 표피의 특성을 보이는데, 표면을 감싸는 물성과 그 구성적 표현을 강조하게 된다. 건축표피는 물질성을 드러내는 감각적 표현의 대상이 되며, 주변 환경을 지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축의 개념을 얻어 낼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하게 된다. 비고정적이며, 변동하는 현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각'은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개념에 맞추어 건축물의 표피에 생성적인 이미지를 재배치하게 된다. 이때 표피재료의 비물질화를 위한 인위적인 공극으로 투명성을 부여하며, 구축방식에 따른 표피의 표현성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건축표피의 새롭게 배열되는 요소들의 접합을 통해서 새로운 촉각적인 물성을 만들어 낸다. 현대사회에서 다층적 표피는 여러 겹의 켜와 기능을 갖는 새로운 공간의 켜로 구성된다. 서로 다른 정도로 반복되는 하나의 요소들의 접합과 배열로 인해 혼성적인 감각의 비물질적 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 표면의 깊이감이 확대 되었을 때, 이중으로 나뉜 공간의

커들은 입사된 오브제의 패턴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결정의 격자구조를 파악하고, 그 물질만의 특성을 파악 내부의 오브제가 어떤 배열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며, 반복적인 투영성을 보여주게 된다.

이미지 생성체적 표피의 특성은 X-ray처럼 내부가 투영되는 이중의 커 구조를 가지고 내부의 물질구조를 투사하여 형태에 대한 상징적인 시각화를 통해 그 장소에 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다층적 표피의 특성을 통해 건축표피를 표현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관찰자는 구축의 실체가 겹치면서 내·외부가 하나의 혼합체적인 이미지로 인식 된다. 건축물 전체의 이미지를 장악하는 표피의 표현적 특성이 극대화 되면서, 주변 환경과 내부요소 사이의 시각적인 착시와 겹침효과로 다양한 사건, 의미, 감각의 집합체로 단일한 전체상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관찰자들이 다양한 층위의 의미를 지닌 이미지들의 혼합과 가축성을 유발하며, 건축물의 내·외부의 요소들을 하나의 혼합체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관찰자는 건축표피를 시각을 통한 촉각적 경험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다층적인 경계면으로 인식하게 되어 인간과 환경의 감각과 지각의 매개체로서 작용하게 된다.

<표 6> 혼성적인 감각의 다층적 표피의 특성과 의미

| 대표 사례  |    |
|--------|---|
| 이미지 기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롭게 배열되는 요소들의 접합</li> <li>• 혼합체적 이미지</li> <li>• 콜라주 효과를 이용한 모호한 깊이감</li> </ul>   |
| 이미지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체와 허상의 경계 형성</li> <li>• 회화적 이미지를 통해 하나의 혼합체적 이미지를 형성</li> <li>• 인식주체에 따른 감각적 경험</li> <li>• 반복적인 투영성</li> </ul>  |
| 이미지 생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롭게 배열되는 요소들의 접합을 통해서 새로운 촉각적인 물성의 형성</li> <li>• 인간과 환경의 감각적 매개체</li> <li>• 열린 경계의 시각적 상호작용</li> <li>• 이중적 커를 통한 투사적 성격</li> <li>• 구축의 실체가 오버랩되어 단일상 획득</li> <li>• 혼성적인 감각을 통한 공간감각적 지각 특성을 발생</li> </ul>          |

### 4.3. 표피의 경계확장성

현대건축의 이미지생성체적 표피는 재료의 구축을 통한 물리적 건조 환경을 건축표피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요소간의 관계에 따라 지속적인 의미 생산과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생성해 내는 표피는 내·외부의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적 역할과 함께 표면의 기능들을 건축물의 내부로 전이시키면서 실내공간을 강조하여, 내재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또 하나의 시각적 스킨의 경향을 보인다. 단순히 표피 자체의 특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감의 확대를 통해 표피에서 파생되는 내부공간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새로운 공간적 가

치를 지니는 불확정적인 잠재성을 가지게 된다.

#### (1) 불확정적 경계면으로서의 잠재성

현대사회에서 건축표피는 물질 표면 조작을 통해 건축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불확정적 경계면으로서의 잠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피의 투명성을 위한 유리역할이 장소를 만드는 인터페이스로서 사용되며, 표피 그 자체가 대지에 펼쳐진 영역을 형성하거나 공간적인 기능을 갖는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경계면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표피는 사람들이 행위가 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적인 프로그램을 담게 되고, 다양한 시·지각적 영역간의 연계를 통해 장소성을 형성하게 된다.

<표 7> 불확정적 경계면으로서의 잠재성을 통한 특성과 의미

| 대표 사례  |    |
|--------|--|
| 이미지 기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향성을 갖는 구조체</li> <li>• 다층적 반투명경계</li> <li>• 내·외부의 상호작용</li> <li>• 표피가 대지와 함께 볼륨을 형성</li> </ul>  |
| 이미지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행위를 유발하는 잠재성</li> <li>• 인식적 경계의 소멸을 통해 나타나는 공간감각적 지각 특성</li> <li>• 표피가 내외부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내포</li> <li>• 대지와외의 경계를 소거하여 주름으로서의 표피 형성</li> </ul>  |
| 이미지 생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피자체에 공간성 부여</li> <li>• 도시적 외부공간의 연장으로 다양한 시·지각적 영역 연계</li> <li>• 가벼움의 특성은 시·지각적 경험에 의해 전달되는 이미지를 형성</li> <li>• 표피의 적극적인 접기를 통해 대지의 이미지를 형상화</li> </ul>   |

위 표와 같이 건축표피는 깊이감의 확장을 통해 외부 환경과 중첩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건축적 경계를 시각적으로 소거함으로써 주변과의 맥락적 연결성을 갖는다. 불확정적 경계면으로서의 표피는 가벼움을 지향하는 비물질성과 함께 중심성의 해체, 중력·부피감에 대한 저항이며, 시·지각적 경험에 의해 전달되는 적극적인 접기의 방식들을 통해 상징적인 이미지를 생성한다. 표피 그자체가 대지와 함께 볼륨을 형성하며, 장소가 가지는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장소 그 자체의 주름으로써 존재하게 된다. 대지와 건축물의 볼륨의 경계자체를 없애고, 방향성을 갖는 주름으로서 볼륨을 형성하는 이음매 없는 매끈한 형태, 비정형화된 형태의 표피로 공간을 형성하기도 한다.<sup>23)</sup>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표피에 새로운 공간성과 기능을 담게 되고 됴므로써 건축의 평면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공간적 특질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체와 구획된 벽으로 부터 비롯되는 깊이감을 제거하고, 표피의 경계면으로부터 펼쳐진 영역 형성과 사람들의 행위를 유발하는 유연한 공간과 동선을 만들어 낸다.

#### (2) 내부공간으로의 관계성 확장

현대사회는 밀도가 높아져 감에 따라 관찰자들의 시점에서 보게 되는 것은 깊이보다는 입면만을 보게 되었다. 이미지 생성체적 표피는 내부공간으로의 관계성 확장을

23) Antoine, 김원갑 역, 건축의 디지털 문화, 시공문화사, 2012, pp.100-114

통해 공간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입면이 따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닌 깊이 그 자체가 표피로 작용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

건축물 자체를 덩어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접하는 공간의 강조 된 재료의 물성과 이미지들이 공간의 깊이감을 강조하며 내적 침투성을 보이게 된다. 앞서 언급 된 5번째 입면인 옥상부의 구성은 기존의 건축 재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첨가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이 같은 건축물의 표면을 바라보는 시점을 바꾸어 놓은 것에서 더 나아가 내적침투를 통해 문화적인 요소와 이미지의 집적물이 표피로 인식되어 관찰자들이 새롭게 의미를 환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새로운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그 역할이 표피로 옮겨오게 됨을 시사하며, 내부공간과의 관계성의 의미를 확장시켜 적극적인 형태의 6번째 입면의 표피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실내공간을 강조하여 또 하나의 시각적 스킨으로 등장시키며, 내부공간의 직접적인 표피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8> 내부공간으로의 관계성 확장을 통한 특성과 의미

|        |   |
|--------|---|
| 대표 사례  |   |
| 이미지 기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정 실링의 이미지화</li> <li>• 재료 물성간의 대비</li> <li>• 스케일의 이질감</li> <li>• 내부로의 적극적인 접기</li> <li>• 패턴화된 집적물의 점가</li> </ul>   |
| 이미지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 빛의 변화에 따른 내부공간감의 변화와 주변환경의 유입</li> <li>• 시각적 부유를 통한 공간의 시각적 경계 확장</li> <li>• 행위가 직접적으로 일어 날 수 있는 실존적인 공간성</li> </ul>   |
| 이미지 생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적 침투성</li> <li>• 상징적 이미지로서의 표피적 의미의 생성</li> <li>• 내부공간의 직접적인 표피화의 가능성</li> <li>• 다수의 다층의 주관이 상호작용하는 반투명적 경계</li> <li>• 공간의 이질성</li> <li>• 무의식적인 공간의 이미지 생성</li> </ul> |

위 표와 같이 관찰자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건물의 천장면 등, 내부공간 요소들이 직간접적으로 표피로 인식하게 되고, 내부공간으로 확장되어 이루어지는 관계성은 기존의 건물을 바라보는 방식자체를 변화 시키게 된다. 표피의 경계면으로부터 내부공간의 천장면을 건축물의 직간접적인 표피로 바라보고 형태의 물리적인 측면과 이미지의 감정적인 측면을 통합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이 같은 표피의 경계확장성은 건축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들이 펼쳐지는 장으로서 표피는 실존적 의미를 갖고 건축표피의 전면에 표피 자체의 공간성을 부여한다. 기존의 설비와 구조적 역할을 넘어서 그 자체가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되었으며, 상징적 이미지로서의 표피적 의미생성과 함께 행위가 직접적으로 일어 날 수 있는 적극적인 형태의 공간성을 가지는 새로

운 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생성체적 특성들은 도시의 행위자와 도시의 구성요소인 건축표피에 의도적,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현대건축의 표피가 현대의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관찰자와 도시, 건축 간에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삶의 인식적 환경을 확장시키는 가능성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영적 영상을 만들어내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영적 표피로서의 이미지생성체적 특성은 표피의 필터적 기능으로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즉각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며, 끊임없이 의미구조를 발생시킨다.

건축표피의 이미지 생성은 재료 가공을 통해 건물외피에 대한 시각적 인식의 혼동을 일으켜 다양한 효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 되고 있으며, 표면에 가공되어진 이미지나 구축의 변형을 통해 원경에서 건물을 비물질적인 시각적 표면으로 해체시키고 있다. 이미지로 덮여진 시대에서 건축표피는 원래의 물질성을 보여주기 보다는 다른 물질성을 드러내며, 이미지를 생성하는 의미발생기체로서의 새로운 표면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건축표피가 기술·사회적 변화로 달라진 인식을 통해 그 본질적인 성격이 달라지고 있으며, 구축의 통합성과 비확정적이고, 비완결적인 표피로 의미가 확장하였음을 보여준다. 건축표피는 그 안에 내재된 이미지 생성으로 인해 자기반응체적 상호작용성, 혼성적인 감각의 다층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피의 내부공간으로 확장되어 이루어지는 관계성은 기존의 건물을 바라보는 방식자체를 변화 시키며, 경계의 확장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들은 기능과 의미의 통합적인 몸체 역할을 통해 다양한 현상들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는 실체와 허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관찰자의 상상력에 기반한 제3의 공간을 형성시켜 고정적이지 않고 유연한 건축의 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문화적·장소적 맥락으로서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된다. 건축표피의 이미지 생성은 관찰자의 지각에 의한 재해석을 기반으로 다층적인 관계 형성과 다양한 상호작용의 장으로서 그 의미가 중요해 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생성체적 특성을 드러내는 건축표피는 내적으로 접하는 공간의 강조 된 재료의 물성과 이미지들이 공간의 깊이감을 강조하며 내적 침투성을 보이게 된다. 이를 통해 건축표피에 다양한 문화적 코드를 이미지화 하여 관찰자로부터 새롭게 인식되고, 잠재적인 의미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시지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현대건축의 경향들이 가벼운 건축을 지향하게 되

고, 건축표피의 다양한 가능성과 상징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건축표피는 복합체적 역할과 함께 도시와의 상호작용의 특성과 시각과 감각의 구성 요소로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며, 도시, 사용자 그리고 관찰자와의 다양한 소통을 시도하는 매개체로서 건조 환경을 가진 장소에 생기를 주는 다양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권영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1
2. Antoine, 김원갑 역, 건축의 디지털 문화, 시공문화사, 2012
3. Cyril Barrett, 정미희 역, An introduction to Optical art 1970 Studio Vista, 미진사, 1987
4. Gevork Hartoonian, 이종건 역, 건축 텍토닉과 기술 니힐리즘, SPACETIME, 2008
5. Le Corbusier, 이관석 역, 건축을 향하여, 동녘, 2007
6. 소윤아, 장누벨의 '사라짐의 미학'에서 나타나는 건축의 비-물질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2012
7. 손화정, 공간 이미지 표현으로서 표층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02
8. 최기혁,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복합적 외피의 표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2.2
9. 이병욱, 미스 반 데어 로에 건축의 외면에서 나타난 몸체와 정신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2007
10. 김정순 박길룡, 건축에서 '표피의 구축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21권 제2호, 2001.10
11. 김홍일, 콜린 로우 "투명성 이론"의 건축 공간분석 적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8권 제9호(통권 167호), 2002.9
12. 남영호 외 2, 현대건축의 활성표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4권, 제11호(통권241호), 2008.11
13. 유연숙, 아돌프 로스의 장식배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3권 3호(통권제44호), 2004.6
14. 유진상 김현철, 현대건축 외피의 '비물질적' 표현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8권, 제7호(통권165호), 2002.7
15. 유진상, 근대 이후 건축외피 표현방식 재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9권, 제11호(통권181호), 2003.11
16. 유진상, 가즈요 세지마의 착시효과를 이용한 표현적 외피 구축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1권 제8호(통권 202호), 2005.8
17. 이영미 외2, 비올레 르 두 건축이론에 나타난 합리주의적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19권, 제11호(통권181호) 2003.11
18. 정인하, 고트프리트 쾰퍼와 칼 벤틀러의 텍토닉 개념 비교, 건축역사연구, 제7권 제4호(통권17호), 1998.12

[논문접수 : 2014. 05. 31]

[1차 심사 : 2014. 06. 27]

[게재확정 : 2014. 07. 17]